

미국 K팝 팬은 '큰손'



'블랙핑크' 제니

뉴진스

'BTS' 정국

미국의 K팝 팬들이 남다른 소비 욕구로 현지 음악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미국 음악시장 분석 업체 루미네이트는 지난 10일(현지시간) 공개된 2023년 연간 보고서에서 K팝 상품 시장을 '빅 비즈니스'라고 소개하며 관련 소비문화를 집중 조명했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Z세대 K팝 팬은 아티스트 상품, 즉 굿즈에 매월 24달러(약 3만원) 씩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평균 청취자의 월 소비액과 비교해 140% 높은 수준(2.4배)으로, J팝 팬과 비교해도 매월 8달러(약 1만원)씩 더 썼다.

루미네이트 부사장 헬레나 코신스키는 이를 두고 "엄청난 숫자"라며 "(아티스트) 상품에 아티스트의 매출을 키울 굉장한 기회가 있다는 의미"라고 짚었다.

굿즈 지출액, 평균의 2.4배
Z세대 1인 월평균 3만원 소비
J팝 팬보다 약 1만원 많아
스트리밍 한국어 점유율 3위

미국 K팝 팬은 특히 공연 등 아티스트의 음악 행사에 참석하지 못했을 때도 관련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평균 청취자보다 50% 많았다.

이 밖에 '더 많은 상품 옵션을 원한다'는 응답도 평균 청취자 대비 60% 많았다.

보고서는 K팝 팬의 소비 현상을 미국 음악 산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슈퍼 팬'의 특징 중 하나로 봤다.

'슈퍼 팬'은 스트리밍에서 소셜 미디어, 상품 구매, 공연 관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아티스트와 관계를 맺는 적극 팬층이다.

루미네이트의 분석가 헤일리 존스는 보고서 관련 웹 세미나에서 K팝 팬들은 "매우 충성도가 높고 열성적"이라며 "슈퍼 팬의 비중이 상당히 높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미국에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 데에는 현지 K팝 팬들이 가진 특이성이 일정 부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미모 아이돌로지 편집장은 "미국의 K팝 팬은 소비자 중심으로 변했다는 특징이 있다"며 "주류와는 다른 것을 행한다는 정체성 표현을 위해 아티스트 상품을 소비하는 이들이 많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넷플릭스 드라마 '경성크리처' 수현

“냉혈한 일본군 고위 간부 딸 교토방언 능숙하게 쓰러 노력”

“마에다에게 장태상이 '구차하더라도 살아남아야 하니까'라고 말하는 장면을 찍어야 하는데, 리허설 때부터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 장면을 촬영하면서 정말 많이 울었죠.”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경성크리처'에서 일본인 마에다 유키코를 연기한 배우 수현(사진)은 작품의 가장 중요한 장면으로 마에다와 주인공 장태상(박서준 분)이 대치하는 부분을 꼽으며 이렇게 말했다.

수현은 지난 12일 서울 중구 엠베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진행된 인터뷰를 통해 “동료를 배신한 것도 모두 살아남기 위해서 한 일이었고 누구도 탓할 수 없다는 태상의 말이 너무나 가슴 아프게 들렸다”고 했다.

'경성크리처'는 광복을 몇개월 앞둔 1945년 일제 치하의 경성(지금의 서울)에서 일본군이 조선인을 대상으로 생체실험 끝에 괴물을 만들어내는 이야기를 다룬다.

수현이 연기한 마에다는 경성 경무국 경무관 이시카와의 아내이자 일본군 고위 간부의 딸이다. 극 초반에는 비밀스러운 인물로 그려지고 주인공 태상에게 도움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마에다가 일본군이 자행한 생체실험을 후원해왔으며 모든 사건의 흑막이었던 사실이 드러난다. 마에다는 마지막까지 태상과 윤채옥(한소희)의 발목을 잡는다.

수현이 가장 중요한 장면으로 언급한 부분은 후반부에 해당하는 9회에 등장한다. 마에다는 태상이 아끼는 동료들이 모두 태상을 배신해왔다고 폭로하면서 '쓰레기들'이라고 매도하는데, 태상은 오히려 그를 두둔한다.

수현이 이 장면에서 분노에 차 태상을 향해 점점 인성을 높이며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마에다의 모습을 연기했다. 드라마 내내 극히 절제된 감정만 드러내다가 순식간에 감정을 폭발하듯이 쏟아내 시청자의 눈길을 끌었다.

수현은 “초반에는 종이를 구기거나 전화를 받거나 하는 식으로 뒷모습만 나오는 장면이 많아서 답답했다”고 털어냈다. 그가 어떤 악행을 저질러왔는지 밝혀지기 전까지 마에다는 의문의 대상으로 비쳐야 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수현은 “(앞서 언급한) 태상과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말문이 트인 것처럼 감정을 실어서 말을 쏟아낸다”며 “그 장면 전까지는 최대한 힘을 빼고 예쁜 소리로 말하려고 신경 써가며 촬영했다”고 말했다.

그가 특히 정성을 기울인 것은 일본어 공부였다고 한다. 수현은 “매주 두세 번씩 화상으로 일본어 수업을 들었다”며 “일본어 선생님이 세 분 계셨는데, 제가 제일 수업을 많이 들었다”고 털어냈다.

수현은 또 “마에다는 '경성크리처'의 여러 일본인 캐릭터 중에서도 유일하게 교토 방언을 쓴다는 설정이라 준비할 게 더 많았다”며 “교토 사투리는



특히 말씨가 예쁘고 돌려 말하는 특징이 있다고 해서 많이 공부했다”고 회고했다.

어눌하던 마에다의 한국어 발음이 후반부로 접어들수록 점차 능숙해지는 것도 수현의 인물 분석에 따른 결과라고 한다. 그는 “마에다도 한국말을 할수록 점점 능숙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이런 부분을 반영하자고 감독님께 제안했다”고 말했다.

마에다는 드라마 후반부에서 남편 이시카와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접하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냉혹한 인물로 그려진다. 그러면서도 태상에게 끊임없이 손을 내밀고 태상이 주변 사람들을 저버리길 바란다.

이런 마에다의 행동과 성격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묻자, 수현은 “마에다는 '컨트롤 프리크'(Control Freak·통제광)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2005년 한중 슈퍼모델 선발대회에서 1위에 오르며 모델 활동을 시작한 수현은 2006년 SBS 드라마 '게임의 여왕'으로 연기자로 데뷔했다.

그는 한국보다 외국에서의 활동으로 더 얼굴을 알렸다. 2015년 마블 영화 '어벤저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 출연해 화제가 됐고, 아직 넷플릭스가 한국에 진출하기 전인 2014~2016년 넷플릭스 미국 드라마 '마르코 폴로'에 여전사 쿠틀룬 역할을 맡아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수현은 미국 넷플릭스 작품에 출연한 지 7년여 만에 한국 넷플릭스 작품인 '경성크리처'에 출연했다. 또 첫 한국 영화 출연작인 허진호 감독의 '보통의 가족'이 올해 개봉할 예정이다. 한국 영화계에서 활동하다가 해외로 진출하는 일반적인 한국인 배우의 행보와 정반대다.

그는 “저는 도전을 별로 무서워하지 않고 즐기는 편”이라며 끊임없는 도전을 예고했다.

/연합뉴스

'서울의 봄' 2024 아카데미 6개 부문 후보

국내에서 1200만 관객을 돌파한 흥행작 '서울의 봄'이 올해 아시아필름어워즈(AFA)에서 6개 부문 후보에 올랐다.

아시아필름어워즈아카데미가 지난 12일 공개한 제17회 시상식 후보 명단에 따르면 김성수 감독의 '서울의 봄'은 최고상인 작품상을 비롯해 감독상, 남우주연상(황정민), 남우조연상(박훈), 촬영상, 편집상 등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일본의 차세대 거장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의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와 공동으로 최다 부문에서 후보로 지명됐다.

지난해 11월 개봉한 '서울의 봄'은 12·12 군사 반란을 모티프로 한 작품으로, 정권을 탈취하려는 전두환 보안사령관과 이를 막으려는 이태신 수도 경비사령관의 숨 막히는 대결을 그렸다.

오는 3월 홍콩에서 열리는 아시아필름어워즈에는 한국 영화 6편이 총 16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됐다. 정유미는 유재선 감독의 스릴러 영화 '잠'으로 여우주연상 후보에 올랐다. '잠'은 각본상 트로피를 놓고도 경쟁한다. 류승완 감독의 '밀수'에 출연한 박정민과 고민시는 각각 남우조연상과 여우조연상 후보로 선정됐다.

/연합뉴스



1979.12.12 군사 반란 정작히 강박관 9시간

직항로 개설 카페리어객선 6월 26일 취항

해남군 우수영 ↔ 신안군 장산 축강 30분대
신의 동리 50분대

사통팔달 해상교통의 관문 → 해남군 우수영항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대교 → 남해고속도로 서영암 IC → 30분 소요

☎(유)신진해운 061)244-0522